

# 광주·전남 공기업 빚 이자만 연 120억

**광주 7423억·전남 6031억원 4년새 부채 눈덩이  
박남춘 의원 “전국 이자만 1조6천억…경제블랙홀”**

지난해 광주와 전남의 공기업 부채가 각각 7423억원과 6031억원에 달해 연간 이자만 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공기업 부채액은 7423억원, 전남도는 6031억원으로, 4년 전인 2007년보다 각각 160.4%와 252.4% 증가했다.

문제는 광주시와 전남도 공기업의 부채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 공기업 부채는 2007년 4629억원, 2008년 4801억원, 2009년 7468억원으로 늘었다가 2010년 7060억원으로 다시 줄었으나 지난해

7423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이자는 74억원에 달했다. 4년 전 이자는 19억원이었다. 광주시 공기업 부채는 전국 16개 시·도 중 7위, 6대 광역시 중엔 인천·부산·대구에 이어 네 번째다.

전남도 공기업 부채는 2007년 2389억원, 2008년 2865억원, 2009년

4218억원, 2010년 5372억원, 지난해

6031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이자는 45억원으로 4년 전 52억원보다 7억원 감소했다. 전남도 공기업 부채는 전국 16개 시·도 중 10위다.

지자체 채무와 지방공기업 부채를 합한 광주시 총 채무액은 1조5305억 원이며, 전남은 2조1689억원이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방 공기업 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지방정부에서 설립한 각종 개발공사들이 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때문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28조원, 공기업 부채는 49조원으로 총 채무가 77조원에 달했다. 이에 자자체 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은 연 1조원, 지방공기업 부채에 대한 5년간 이자총액은 1조6321억원으로 추산됐다.

시·도별 지방공기업 부채는 서울시가 22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는 701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박남춘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부분별한 설립과 부채증가는 지방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국가 전체의 경제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지방공기업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 문제를 개선하고 전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하계U대회 FISU 대표단 오늘 광주 방문

**내달 제1차 국제경기위원회…대회 준비상황 점검**



세계 최초로 한글을 공식 표기 문자로 도입했던 인도네시아 소수민족 찌아찌아족(族)의 비우바우시(市)에서 한국어 교육기관과 현지 유일의 한국인 교사 모두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손꼽힌 찌아찌아족 대상 한글 보급활동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8일 훈민정음학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경북대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술리웨시주(州) 부룬섬 바우바우시에서 운영된 한국어 교육기관 ‘세종학당’이 지난 8월31일 철수했다.

세종학당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어 세계화재단이 세계 각지에 설립하는 한국어 교육기관으로 바우바우시에는 경북대와 인도네시아 무함마디야 부문대 협력으로 설치돼 올해 1월30일 개원했다.

올해 초 세종학당에 강사로 파견됐던 현지 유일의 한국인 교사 정덕영(51)씨도 세종학당 철수와 함께 한국으로 되돌아왔다.

찌아찌아족은 독자적 언어는 있지만 문자가 없어 고유어를 읽을 허용에 놓였다가 지난 2009년 훈민정음학회의 건의로 한글을 표기 문자로 도입하고 학회가 만든 교과서를 썼다.

문화부는 바우바우시에 세종학당을 맡은 다른 대학을 찾아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영 기자 kwangju@korea.com

**영 거든·日 암나카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수상**



준 거든 암나카 신야

올해 첫 노벨상인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영국의 존 거든(79)과 일본의 암나카 신야(50)가 공동 선정됐다.

스웨덴 카를리스카 의대 노벨위원회는 유도만능줄기세포(IPS) 개발과 응용 과정에 이들이 기여한 점을 들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준 거든 암나카 신야

## 불산 누출 구미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8일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일대 불산가스 누출사고 현장에 대한 1차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산 가스 누출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피해 발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재난을 수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농작물, 축산, 산림, 주민건강 등 분야별로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기준을 수립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등 각 부처는 자원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자자체와 공동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동식 대기측정차량을 현지에 파견해 주요 지점과 주민들이 원하는 지점의 공기 중 불산 농도를 측정하고, 매일 대기·수질·토양·지하수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태풍피해 보상, 국가수매제 실시” 투쟁 선포식



태풍 ‘볼라벤’ 등으로 빠 백수 피해를 입은 장흥군 농민들이 8일 장흥군청 앞에서 나락을 쌓아놓은 채 생산비 지원과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농민연대

잇따른 태풍으로 인한 백수(白穗·벼 이삭미름) 피해로 어려움이 기승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농민들이 태풍 피해 보상과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관철하기 위해 농·축산물 청와대 반납투쟁과 공공비축미 수매 거부 운동을 돌입했다.

광주·전남 농민연대는 광주를 비롯해 순천·장흥·화순·보성 등 8개 시·군에서 ‘태풍피해 보상,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 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농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쥐꼬리만 대파비와 현실성도 없는 조사료 지원금이 태풍 피해에 대한 정부보상”이라며 “연이온 3개의 태풍 피해 보다 더 오래 가슴 아픈 것은 정부의 대책이 농민을 위로하지 보다 더욱 실망에 빠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농업기반 분과는 식량 불안과 농·축산물 가격폭등을 가져오고, 국민들이 피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백수피해 벼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국가수매제 도입을 위한 공공비축미 수매거부 운동을 대선 전까지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농·축산물 청와대 반납투쟁을 이날 말과 11월 중순 등 2차례에 걸쳐 별일 계획이다. /송기동기자 song@

## 朴지사 “한·중 FTA 농수축산물 양허에서 제외해야”

박준영 전남지사가 8일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면담을 갖고 “한·중 FTA 과정에서 농수축산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면담에서 박 지사는 “한·중 FTA를 비롯해 최근 극단 FTA로 전남 농어업분야 피해가 크다”면서 “이를 위해 경쟁력을 있는 품목에 대한 예산 지원과 협상 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관세화 제외하거나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해 양허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지난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전남도가 건의한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주요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미흡하다”며 “식량 안보

차원의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태호 본부장은 “전남도의 의견 및 건의사항이 한·중FTA 협상 대응전략 수립 시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중 FTA는 지난 8월 중국

에서 제3차 협상이 개최됐으며 이로 면 이달 중 제4차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중국은 쌀 등 농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체계 및 기후가 우리와 유사해 농수산물이 자가로 수입될 경우 농업분야 피해가 예상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시중 유통 일부 꽂차서 농약성분 검출

시중에 유통중인 일부 국화차 등 꽂차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6월에 꽂차 100건을 수거해 전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는데 8건에서 6종의 농약이 미량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시 연구원은 마트, 농원,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국내산 21건과 수입산

79건(중국산 50, 독일산 20, 미국산 3, 기타 6)을 대상으로 203개 항목에 대한 농약성분을 검사했으며, 이 중 국화차 4건, 자스민차 2건, 백합꽃차 1건, 연꽃차 1건에서 농약이 검출됐다.

산지별로는 중국산이 7건(국화차 4, 자스민차 2, 백합꽃차 1)이고, 국내산 1건(연꽃차)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부동산매각 공고

임차면적 번호	소재지	면적			용도	최저찰가
		토지	건물	면적		
1	전남 나주시 노연면 학산리 780-83 동 소 780-84 동 소 780-85 동 소 780-86 동 소 780-87	390㎡(117.9평) 336㎡(101.6평) 48㎡(14.5평) 372㎡(112.5평) 336㎡(101.6평)			광장용지 광장용지 광장용지 광장용지 광장용지	75,551,878
2	광주 북구 흥동동 710-12 710-13 710-14 710-15 710-16	139㎡(42.0평) 992㎡(300.0평) 724㎡(210.0평) 922㎡(278.9평) 248㎡(75.0평)		329,42㎡(99.6평)	단지주차	286,752,427
3	전남 완도군 신도면 송곡리 682-2 682-3 682-4	682-2 724㎡(210.0평) 682-3 922㎡(278.9평) 682-4 39.07㎡(11.8평)			전 전 임야	115,363,495
4	광주 광산구 월드컵로 890-4 2F-203	42,28㎡(13.3평)		126.27㎡(38.3평)	노래방	336,162,353
5	광주 동구 수기동 23-7	1520,70㎡(460.0평)		1764,28㎡(533.69평)	근린상가	2,630,811,000

\*매각대상부동산 중 유형부동산은 1차 최저가의 10%가 저감된 금액으로 실시합니다.

\*단, 입찰자로 된 물건 중 당 저축은행의 사정에 따라 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2. 입찰설명 : 일반경쟁입찰(단독찰도 유동)

① 입찰일시 : 2012년 10월 19일(금) 14:00~14:45  
② 입찰설명회 : 14:30~15:25  
③ 입찰참여 : 15:30~15:55

3. 입찰설명회 : 개인·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④ 입찰설명회 : 개인·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⑤ 입찰설명회 : 개인·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⑥ 입찰설명회 : 개인·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⑦ 입찰설명회 : 개인·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⑧ 입찰설명회 : 개인·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⑨ 입찰설명회 : 개인·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⑩ 입찰설명회 : 개인·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⑪ 입찰설명회 : 개인·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⑫ 입찰설명회 : 개인·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⑬ 입